

# 중년기 자녀의 노부모 부양: 의무에서 성숙의 차원으로

Middle-aged children's filial responsibility of their aging parents:  
From filial obligation to filial maturity

광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玉 耕 喜

Dept. of Home Management

Assistant Prof.: Kyunghee Ok

## 〈목 차〉

- I. 서론
  - II. 부모-자녀관계에서 살펴본 자녀로서의 도리: 노부모부양
  - III. 도덕발달과 중년기 자녀의 노부모 부양
  - IV. 중년기 자녀의 도리인 노부모 부양: 의무에서 성숙의 차원으로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Due to the increase in life expectancy, the family life of recent days has been through significant changes including prolonged relationships among different generations within families and changing roles and relationship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are for elderly parents, middle-aged children's filial responsibility have been examined. Based on balanced reciprocity between middle-aged children and their aging parents, each party is able to allow each other to respond needs and to respect rights. It is assumed that middle-aged children's moral development may be useful to discriminate levels of filial responsibility from filial obligation to filial maturity. This assumption challenges previous beliefs that filial obligation and filial maturity are the same.

## I. 서론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가족 구조뿐 아니라 가족원들 사이의 관계에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여러 가지 변화 중 하나는 늘어난 개인의 평균수명이다. 미국의 경우 1900년에는 50세에도 미치지 못하던 평균수명이 1984년에는 남자가 71세, 여자가 78세로 늘어났다(Bahr, 1989). 일본의 경우 1947년 남자 50세, 여자 54세에서 1990년에는 남자가 76세, 여자가 82세로 변했다 (Owaga & Retherford, 1993). 1960년에 남자 51세, 여자 54세로 기록된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역시 (재인용, 송성자, 1989), 1991년에 이르면 남자 67.8세, 여자 75.7세로 (통계청, 1991) 연장되었다.

이렇게 달라진 평균수명과 더불어 사회구성원으로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함께 바뀌었다.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1900년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4%에 불과하던 것이 1980년대 중반에는 11%를 차지하여 무려 3배에 가까운 증가를 보였다 (Mancini & Blieszner, 1989). 일본만 해도 1950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5%내외에 불과하였던 것이 1990년에는 12%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25%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Owaga & Retherford, 1993).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3%였던 것이 1995년에는 5.7%로 증가하고 2020년이 되면 12.5%를 차지할 것이라 한다 (통계청, 1994). 이런 전반적인 추세로 미루어 보아 우리 나라 사람들의 평균수명도 앞으로 더 연장될 전망이고, 그와 더불어 노인인구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사회의 인구학적 변화는 생애주기 (life course)에서 노년기를 상당히 연장시켰고, 주로 3세대가 어울려 이루어지던 가족관계를 4세대간의 그것으로까지 늘려놓았다. 가족 내 노부모의 존재는 가족원들과 가족관계에 보다 다양한 역할모형을 제공하고, 친족관계를 활발하게 촉진하여 가족간의 유대를 증진시키고,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합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반면 세대간의 갈등과 반목 그리고 그 결과로 가족원들 간의 죄책감을 증가

시키며, 가족의 부양부담을 늘리는 부정적인 기능을 하기도 한다 (Bengtson, 1993). 어쨌든 노년기의 연장과 노인인구의 증가로 말미암아 노부모 부양문제 또한 보다 진지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중년기의 자녀들에게 노부모 부양이 이제는 치러야 할 규범적 발달과업 중의 하나로 꼽히게 되었으며 중년기 자녀로서의 역할을 우선 제대로 마쳐야 노년기에 요구되는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 (Blenkner, 1965)은 그래서 설득력을 지닌다.

평균수명 연장은 중년기 자녀들에게 노부모 부양이라는 과제를 점차 보편화, 장기화시키고 있으면서도 사회의 가치나 구조는 노부모 부양을 격려하기보다는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겪으면서도 한국인들은 노부모 부양에 대해 상당히 높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다. 윤종주 (1982)는 75%이상, 그리고 경제기획원 (1987)이 한국의 사회지표를 연구한 논문에서는 한국인들의 70% 이상이 노인부양의 책임은 자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통계청 (1994)이 발표한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에서도 87%의 응답자가 부양책임은 자녀에게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자료는 일본의 경우에도 연구대상자의 58%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자식으로서 마땅한 도리라고 대답 (Owaga & Rutherford, 1993)하고 있으며 개인의 사생활과 부부중심의 가족생활을 높이 평가하는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노부모 부양에 대한 자녀들의 책임감이 크게 달리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다. 여러 연구들은 평균적으로 미국인들도 노부모부양에 대하여 자녀들이 책임을 느끼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Cantor & Hirshorn, 1989; Mancini & Blieszner, 1989).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에서는 노인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녀들을 법적으로 처벌하겠다는 정책을 공공연하게 내세우기도 한다. 물론 법적인 제재와 의무를 강화하고 특정 윤리관을 강조하여 자녀들로 하여금 노부모부양에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거나 실제로 부양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노부모의 부양을 개별가족에 일임하고 있는 것은 현대산업사회에서 적

합치 않더라는 지적과 함께 이제는 국가가 정책적 차원에서 부양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도 늘고 있다 (Brody & others, 1987; Horowitz, 1985; Lang & Brody, 1983; Mancini & Blieszner, 1989; Post, 1989; Scharlach, 1987; 엄혜정, 1990).

노부모 부양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같은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이론적인 측면에서 노부모 부양을 다루는 지적인 작업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기에 사회적으로 이미 노인인구의 증가를 경험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가족원들, 특히 중년기 자녀들이 노부모 부양으로 인해 갖는 부담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Brody, 1985; Brody, Kleban, & others, 1987; Cantor, 1983; Cohen & Gans, 1978; Horowitz, 1985; Klein, 1989; Lang & Brody, 1983; Rosental, Matthews, & Marshall, 1989; Scharlach, 1987; Stueve & O'Donnell, 1984). 우리 나라에서 노인부양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아직은 매우 소극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어떤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사회구성원에게 전통적인 효도를 강조하여 개인적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시도하려는 노력에 강조하는 듯하다.<sup>1)</sup>

사회화를 통해서 혹은 주어진 규범 내에서 노부모 부양과 관련된 문제를 확립적으로 '자녀도리'를 내세워 해결하고 의무화시키려는 비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각 가족이 형성해온 부모-자녀관계의 상호작용 안에서 노부모 부양을 정리해보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기존의 전통사회의 규범과 현대 서구사회에서 유입된 사상이 서로 배타적으로 노부모 부양에 대한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다 통합적으로 이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도덕발달의 관점

을 이용하여 노부모 부양문제를 살펴보려 한다. 그런 다음 중년기 자녀들이 도달할 수 있는 도덕적으로 성숙하고 우위성을 지니고 있는 단계에서의 노부모 부양이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도덕발달 수준에 따른 노부모 부양의 차별성을 밝히려는 노력도 아울러 기울여야 한다.

## II. 부모-자녀관계에서 살펴본 자녀로서의 도리: 노부모부양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자녀의 마땅한 도리인가라는 질문은 일견 부질없거나 사뭇 도발적인 느낌을 우리에게 준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논리적인 분석과 판단을 내리려는 시도에 대해 우리는 관습적 사고와 본능적 감정의 작용으로 인해 다소 면구스러워진다. 그것은 노부모 부양을 의문의 여지없는 자식의 노리라고 간주해 온 전통적 규범의 그늘 아래 우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의 종교적인 위엄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자녀도리론'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겠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는 어려서는 부모를 존경하며 커서는 부모를 잘 부양하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이와 같은 자녀로서의 도리를 규정하는 규범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사회에 두루 존재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주지하는 대로 인간을 철저히 공동체적 가치의 구현체로 파악하였으며 개인이 관여하는 모든 공동체적 관계를 정리해주는 올바른 준칙을 효(孝)의 본질에서 찾고 있었기 때문에 효야말로 백 가지 행실의 근본으로 강조되어왔다 (이계학, 1995). 그렇기에 노부모를 돌보아야 하는 것이 진정 자녀의 도리인가라는 의문은 감히 가질 수도 없었다. 우리 나라 전통윤리의 고전인 『효경(孝經)』에서는 자식된 자가

1)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노인부양에 대해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신문이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한국인의 정서를 사용하여 효도의 개념을 강조하는 상품광고를 자주 접하게 된다. 또한 정부에서는 노인정책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효의 개념을 격려, 강조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 장윤식(1988)의 논문에서도 이 점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심지어 회사들조차도 회사내의 연수계획에 효도의 개념을 주제로 채택하고, 주요 도시들의 도심지역에서 "당신은 요즘 부모님을 위해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고.... 가족윤리 재건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시작했다." (P. 123)

부모로부터 받은 신체를 온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라고 까지 했다(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 우리 조상들은 그 뜻을 지킬 뿐 아니라 실생활에서 글자의 뜻을 그대로 실천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서구의 Aristotle이나 Aquinas (Sommers, 1987 재인용) 등이 우리의 생명 자체를 부모로부터 받은 소중한 선물이라고 했던 것도 같은 맥락의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부모의 지위에 이미 존경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도 한다. 영국의 Locke 와 Hume (Sommers, 1987 재인용)은 부모는 정의와 의무와 권리의 차원에서 부모는 자녀들로부터 존경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은 『효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람의 행위 중 효가 으뜸이며 그 중에서도 아버지를 하느님 같이 모시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嚴父慕大於配天)는 표현이 바로 그것이다.

이 같은 '자녀도리론'과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빚을 졌다는 식의 논리규범은 가당치 않다고 반박하거나 부모에게는 의무를 수행할 뿐 요구해야 할 권리나 보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부모도리론'이라 할 만한 주장도 있다 (Bluestein, 1982; English, 1979). Bluestein (1982)에 따르면 부모에게는 자녀가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는 역할의무만이 있을 뿐 자녀에게 반대급부로 요구해야 할 보상은 없다는 것이다. English (1979)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특정한 빚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부모-자녀간에 우정이 존재할 경우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할 수 있겠지만 우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녀로서의 도리 역시 소멸된다고 주장한다.<sup>2)</sup>

본 연구는 '자녀도리론'적인 입장이나 '부모도리론'적인 입장에 모두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한다. 위의 두 입장들은 한결같이 부모-자녀관계라는 실제적인 현상에 대한 동태적인 이해를 결여한 채 그저 노부모 부양이 자녀의 도리이다, 아니더라는 흑백논리 식으로 지나치게 평면적이고 정태적인 논리구성

을 갖고 있다. 노부모 부양문제는 화석화된 선형 규범상의 강요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작용 속에 놓여있는 사회경험상의 수용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는 요컨대 부모-자녀관계의 역동적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 관점을 통해 이 문제를 새롭게 정리해보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독특하게 형성되는 감정적 유대 (emotional bond)인 애착 (attachment), 도덕적 유대 (moral bond)를 대표하는 책임의식 (commitment), 그리고 세대간의 충성과 성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상호성 (reciprocity) 등을 중심으로 왜 노부모 부양이 중년기 자녀들의 도리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애착

애착이란 인간이 태어나서 자신을 돌보아 주는 대상과 맺는 강한 정서적인 유대를 뜻한다. 아동발달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부모와 자녀사이의 관계가 좋을 때 건전한 애착이 형성되고, 이러한 애착은 아동의 기능적 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애착은 어머니와 형성되며 아동기를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있어서만 중요하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애착을 이론화시킨 Bowlby (1977)는 애착이란 성인이 되어서 배우자나 자녀와의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부모들과 맺은 애착이 줄어들어 기보다는 다른 형태로 지속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도 한다. 중년기 자녀들을 대상으로 노부모 부양에 애착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감을 갖거나, 혹은 실질적인 부양 행동에 애착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Cicirelli, 1983, 1991; Norris & Tindale, 1994, Roberts & Bengtson, 1990). 자녀들이 부모를 돌보는데 사용한 시간은 부모들의 건강상태나 요구 정도를 통제한 후에도 부모

2) 자녀들이 부모에게 의무감을 가져야 하는가 혹은 부모가 자녀에게 부양 받을 권리가 있는가에 대한 문헌고찰은 Callahan (1985), Post (1989), Sommers (1987)의 논문을 참조하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에 대한 애착 정도와 역시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있음이 나타난 결과 (Cicirelli, 1991)를 보더라도 자녀들의 노부모 부양에 부모-자녀관계 사이에 형성된 애착은 중요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우리 나라 자녀들의 부모 부양 이념을 조사한 한 연구에서도 사랑이 부모부양 동기로 제일 많이 지적되었다 (성규탁, 1994).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혹은 부모에 대한 애정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겠다는 의도가 모든 연령층에서 골고루 으뜸으로 꼽혔는데 소년층과 청년층에 있는 응답자들이 성년층이나 장년층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효행자들의 효행동기 연구결과 (성규탁, 1989)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사랑이 이 연구에서 제일 높은 순위로 언급된 것은 의외이다. 성규탁 (1994)은 이를 우리의 관습이나 예의가 가급적 사랑을 표현하지 않게 하였으나 이제는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Foner (1993)는 노부모부양을 당연한 도리로 여기는 나바호 인디언의 예를 들면서 세대간의 깊은 애정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식으로서의 도리가 강조될 수 있다고 한다.

노부모의 복지를 위해서는 자녀와 부모간의 정서적인 유대를 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정서적인 유대는 부모와 자식 세대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손자세대까지 포함할 때 더 효율적이고 (Foner, 1993), 부모가 자녀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해주는 한 유지될 수 있다 (Blieszner & Shifflett, 1989, Cicirelli, 1991 재인용)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가족관계가 결속력을 잃어가고 친족관계가 급속히 약화되어 노부모 부양이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우리 사회에서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자녀관계 사이에 이루어진 애착만을 노부모 부양이 자식된 도리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일이다. 부모-자녀관계는 애착과 더불어 다른 관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집단으로서의 독특한 도덕적 유대감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 2. 책임의식

출생과 더불어 성립되는 가족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위적으로 선택, 해소할 수 없듯이 가족 성원들 간의 관계도 역시 다른 관계와는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 『효경』에서는 부모와 자녀관계는 인위적으로 맺을 수 없으며 오랜 세월이 흘러도 없앨 수 없다고 한다 (父子之道 天性也...). 서로에 대한 강한 책임의식(commitment)이나 충성심은 집단에 소속되는 성원들끼리만 공유하는 독특한 감정이다. 특히 가족원들 사이에는 다른 조직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책임의식과 소속감을 바탕으로 하는 도덕적 유대(moral bond)가 형성된다 (Post, 1989). 자녀에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희생을 감수한다. 또한 부모에게 적절한 양육이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들도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고 한다. 부모와 자녀들이 맺고 있는 관계의 특성으로 인하여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 보호하면서 자녀에게 강한 책임감과 유대감을 느끼지만, 자녀들은 양육과 보호를 받는 입장에서 부모에게 빚진 자로서의 의무감을 느낀다 (Allan, 1988). 자녀들이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해야 할 경우 부모와 맺었던 친밀감은 사라지고 거리감을 느끼는 등의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부모 부양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자녀들이 의무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Jarrett, 1985).

부모들은 의무감에서가 아닌 사랑과 애정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동기에서 자녀들이 자신들을 부양한다고 믿거나 그렇게 부양할 것을 원한다 (Walker & others, 1990). 그러나 자녀들은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느끼는 것이 사회의 규범이나 도덕 때문이라고 한다 (Allan, 1988; Berman, 1987; Callahan, 1985; Klein, 1989; Post, 1989; Rybash, Roodin, & Hoyer, 1983; Sommers, 1987). 우리가 흔히 가정하는 이상적인 인간관계는 서로 사랑하고 보호하고 자신의 이익보다는 상대방의 이익을 구하는 것에 힘쓰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상적인 관계를 이룬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가족원들 사이에서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의무감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채 자발적으

로 사랑과 선의와 자신의 성장을 위해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지킨다는 주장은 현실적인 설명이 아닐 수도 있다 (Sommers, 1987).

효행자들이 자신들의 효행동기를 부모에 대한 존경, 부모에 대한 책임, 부모를 위한 희생, 가족의 화합 등이라고 지적한 자료 (성규탁, 1989)는 자녀로서 노부모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도리가 자녀로서의 책임의식에 있음을 반영한다. 상호간에 사랑이 없다면 그 어떤 관계도 더 이상 존속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의 개인적인 가치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서구 문화에 반하여, 나보다는 가족이나 집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독특한 '우리문화'에서는 강한 소속감과 그리고 소속감과 연결된 책임의식이 관계유지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자녀의 도리를 애착과 책임의식에만 묶어놓는 것은 부모-자녀관계를 비현실적인 영역에 가두어 놓을 경향이 크다. 일반적으로 관계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그리고 합리적인 개념인 상호성 역시 부모-자녀관계를 설명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부분이기 때문이다.

### 3. 상호성

상호성 개념은 세대간의 충성과 성실을 바탕으로 하는 부모-자녀관계의 도리를 규정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Callahan, 1985; Post, 1989; Sommers, 1987). 상호성이란 A가 어떤 방법으로 행동할 때 B가 그에 상응하는 행동으로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성이 만족되기 위해서는 우선 비용/이익 혹은 보상/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교환법칙의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

노부모 부양의 책임을 지는 것이 자녀에게도 공평하다고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속에 우선 부모란 자녀를 책임 있게 보살펴야 한다는 기본전제가 만족되어야 하므로 부모의 사랑에 사심이 없거나 자신을 포기한 다기보다는 노인이 되었을 때 부양을 받으리라는 상호성에 기인한다고 Post(1989)는 주장한다.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자녀를 양육한 부모는 자녀에게 부양 받을 권리를 당연히 가진다. 자녀들 또한 자녀로서의 도리를 충실

히 수행하여야 한다. 중년기자녀들이 상호성이 만족되는 수준에서 노부모의 부양에 대한 합리적인 경계와 기준을 설정하여, 노부모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가 될 때 그것을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생각하며 부양 부담감도 적게 느낄 것이다. 부모-자녀사이에 존재하는 의무와 기대를 '세대간의 계약'이라고 규정하며 이 계약 안에는 부모와 자녀세대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독특한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Bengtson, 1993).

우리 나라 사람들이 부모 부양을 하게 하는 동기 중 은혜보답이 2위로 나타난 결과(성규탁, 1994)나, 4위에 올라 있는 결과(성규탁, 1989)를 보더라도 상호성의 개념이 우리 나라에서도 노부모부양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개념이라 하겠다.

### III. 도덕발달과 중년기 자녀의 노부모 부양

애착, 책임의식, 그리고 상호성 등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부모-자녀관계를 실제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중년기 자녀들로 하여금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의무를 정리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와 더불어 자녀들의 도덕발달 수준 역시 중년기에 들어서면서 맞이하는 노부모부양의 과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인지이론을 정교화시킨 Piaget (1970)는 인간이 주어진 환경을 이해하고 이에 적응하기 위해 동화와 조절과정을 거쳐 평형에 도달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인지구조가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는데 효율적이라면 새로운 정보나 자극이 들어와도 평형상태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인지구조로 상황에 적응하지 못할 때 평형상태는 깨지고, 사람들은 보다 기능적인 인지구조를 찾으려 노력한다. 주위 환경에 어떻게 적절히 적응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인지의 능력에 달려있다면 자신의 안녕 뿐만 아니라 타인의 복지까지 함께 배려하며 정의롭게 보호되고 지켜져야 하는가의 문제 역시 인지발달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Kohlberg (1984)는 도덕발달을 인지발달의 한 양상으로 간주한다. Kohlberg는 도덕발달단계론을 주로 연구하였고 성인들의 도덕발달에는 별로 관심을 쏟

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이 함께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공평함을 유지하게끔 하는데 도덕의 주 기능이 있다고 한다면 도덕발달 수준은 사람들이 부딪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많은 영향력을 발휘한다. 삶의 경험을 많이 쌓은 중년기에 속한 성인들은 도덕적 추론을 주로 자신과 타인간의 관계를 조화롭게 하는가에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Rybash, Roodin, & Hoyer, 1983). 특히 부모-자녀관계에서 자녀로서의 역할을 성숙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겪어왔던 여러 가지 역할들을 경험한 후인 중년기 혹은 중년기를 넘어서서야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Nydegger, 1991). 개인이 부모와의 관계를 자녀로서 인식하고 해결방법을 구함에 있어서 자녀들의 도덕발달 수준은 중년기 자녀들의 노부모 부양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자녀들이 노부모 부양에 대해 갖는 부담감의 정도는 그들의 도덕발달 수준에 의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 (Klein, 1989)는 자식으로서 갖는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감과 도덕발달이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에서는 우선 인지발달에 입각하여 도덕발달을 설명하는 두 이론을 정리하고 도덕발달 수준에 따라 중년기자녀의 노부모부양이 어떻게 구별되는 특성을 갖는지 살펴보겠다.

### 1. 도덕발달이론: Kohlberg와 Gilligan의 이론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도덕발달 이론을 전개한 Kohlberg(1984)는 개인은 사회적 상황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데 자신의 도덕적 능력에 따라서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Kohlberg의 도덕발달 수준은 옳고 그름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전인습적, 인습적, 그리고 후인습적 단계로 나뉘어진다. 전인습적 수준에서는 처벌을 받는지 혹은 보상이 있는 지로 상황을 판단한다.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과 사회적 규범에 가치를 두는 것이 인습적 수준에서의 도덕발달 단계 특성이다. 가장 높은 발달단계인 후인습적 수준에서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하여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한다. Kohlberg가 도

덕발달의 궁극적인 방향을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의 존중에 관심을 둔 '정의의 도덕 (ethic of right)'에 두었다면, Gilligan은 도덕적으로 성숙하다면 서로를 보살필 줄 아는 능력의 관점에서 '배려의 도덕 (ethic of care)' 을 발전시켰다 (Byrd & Smith, 1988).

Gilligan (1977, 1982)이 주장하는 도덕적 수준은 세 단계로 나뉘어지는데 1단계는 자신만을 생각하고 타인을 포함하지 않는 단계이다. 2단계에 도달하면 이제는 자신을 배제하고 타인만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도덕적 단계인 3단계에서는 자신과 타인을 함께 포함하여 배려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춘다. Gilligan에 의하면 1단계에서 2단계로의 전환은 개인이 본인만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음으로 느끼게 되는 본인의 이기심에 대한 죄책감에서 시작되어 점차 타인을 고려의 대상에 넣는다. 그러나 2단계에 머물러 타인만을 배려하게 되면 자기 소외와 회색의 감정이 자신도 관심을 받고 싶은 욕구를 자극시켜 자신을 주장하게 한다. 그리하여 점차 자신과 타인 모두를 포함하는 최고의 도덕적 수준에 이르게 된다.

### 2. 도덕발달과 노부모 부양

이제 우리는 Kohlberg와 Gilligan이 주장하는 두 관점을 적용하여 중년기 자녀들이 갖는 노부모부양의식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정의와 공정성을 강조하는 Kohlberg의 관점에 중년기 자녀의 부양도리를 적용시킨다면 가장 낮은 단계인 전인습적 단계에 해당하는 노부모 부양이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인지구조의 산물이라고 할 것이다. 남의 이목 때문이나 실정법상의 처벌 때문에 타율적으로 부양의무를 지는 경우가 된다. 즉 이 단계에서는 자녀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비난이나 처벌을 두려워하거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상·벌 때문에 부양의무를 느끼거나 부양을 한다. 이 수준에서는 자발성이 개입되지 않은 채 타인에 의해 피동적으로 노부모부양을 의식하고 실천한다.

전인습적인 단계에서 벗어난 자녀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부모 부양기능을 수행하게 된

다. 자녀들은 무엇이 무서워서라기 보다는 무엇을 내심 기대하면서 노부모 부양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 단계의 자녀들은 부모의 부양으로 타인에게 인정을 받는 것에 자극을 받거나 자녀로서 의무임을 깨달아 부양의 책임감을 느낀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자 부양을 책임지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성숙한 도덕적 단계 즉 후인습적 단계에 도달한 자녀들은 동등한 인간으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의 권리도 존중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노부모부양의 책임감을 느낀다.

Gilligan의 이론은 또 다른 관점에서 중년기 자녀의 노부모 부양을 해석하는 틀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Gilligan이 주장하는 1단계란 자녀들의 배려 수준이 자신들에게 아직 머물러 있는 상태를 뜻한다. 이 단계에서의 자녀들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도덕적 수준에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의 부양에 대해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이런 경우 자녀들은 자연적 연령과 관계없이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도무지 책임감 없는 자녀의 지위에만 머물러 있게 된다.

2단계에 도달한 자녀들은 부모 부양문제에 대해서 보다 배려적인 입장을 견지하게 된다. 2단계의 배려 수준에 해당하는 자녀들은 1단계와는 매우 대조적으로 부모의 부양만을 우선 과제로 삼는다. 이때는 정상적인 자기발달이나 정상적인 부부 또는 가족생활이 오히려 뒷전으로 밀려나버린 채 부모의 편안함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랴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게 되고 자신의 필요, 욕구, 권리 등을 전혀 배려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보다 도덕적으로 성숙한 마지막 3단계의 배려수준

에 도달하게 되면 부모-자녀관계는 상호 상승적인 발달을 기하는 것이 된다. 이 단계에서의 자녀들은 노부모만이 아니라 자녀인 본인의 욕구나 필요도 동시에 또는 공통적으로 배려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부모-자녀관계 안에서 서로를 가장 최대로 배려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 IV. 중년기 자녀의 도리인 노부모 부양: 의무에서 성숙의 차원으로

자식으로서의 도리(filial morality)는 우리 나라에서 흔히 사용하는 효도(孝道)라는 개념과 그 뜻을 같이 한다.<sup>3)</sup> 앞 장에서 자식으로서의 도리가 자녀의 도덕발달 수준에 따라 차별성을 지닌다면 이를 나타내는 개별화된 개념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연구자들은 흔히 자식으로서의 의무(filial obligation)와 자식으로서의 성숙함(filial maturity)을 나타내는 두 단어를 특정한 구별없이 사용하고 있다.<sup>4)</sup> 그렇지만 두 개념이 의미하는 바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도덕발달수준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더욱 그러하다.

우선 자식으로서의 의무(filial obligation)의 개념에는 말 그대로 자녀로서 부모에게 행하여야 할 의무만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우리가 앞에서 검토했던 관점들 중에서 상호성과 책임의식만을 고려하며 주위의 인정이나 사회의 규범을 지키기 위해 노부모 부양을 도리로 여기는 자녀들은 Kohlberg의 인습적 단계의 도덕발달 수준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

3)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나타내는 우리 말 개념을 찾아보면 효(孝), 효도(孝道), 효성(孝誠), 효행(孝行) 등이 있다. 각 개념들이 조금씩 서로 다른 현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모두 filial piety라는 개념 아래 통상적으로 동일시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자녀의 도리를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개념들인 filial responsibility, filial obligation, filial maturity, filial morality 등과 같은 개념들을 적절하게 대처할 만한 우리 말 작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식으로서의 책임감을 나타내는 filial responsibility와 filial morality는 그 의미하는 바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자식으로서의 도리 즉 효도(孝道)는 filial morality의 개념과 가장 밀접한 개념과 가장 가깝다 하겠다.

4) 자식의 도리에 관해 이론적인 접근을 시도한 여러 논문들에서도 filial obligation과 filial maturity는 별 구분없이 사용되고 있다. Blenkner(1965)는 filial maturity를 사용하고 있으나, Sommers(1987)는 filial obligation과 filial maturity를 같은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Post(1989)는 filial obligation과 filial maturity를 약간의 차별성을 두고 사용하지만 두 단어사이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 이런 자녀들은 부모만을 배려의 대상으로 삼고 자신의 욕구나 필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Gilligan의 2단계 수준의 노부모 부양을 한다. 이런 도덕 발달 수준에 있는 자녀들은 부모부양을 자발적인 동기에서가 아닌 의무적인 동기에서 수행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런 경우 부담감을 느끼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하다 (Walker & Others, 1990).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의무감에서 노부모 부양을 자처하게 될 때 자녀로서의 의무감은 종종 죄의식과 혼란마저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자녀들이 의무감을 강조하다 보면 자유로움의 상실을 느끼고 그 정도가 심해지면 개인적으로는 노부모 부양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력이 감소되거나 심지어 신체적인 질병도 느끼게 되며,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의무감을 갖는 상대에게 적대감을 느낀다 (Berman, 1987). Cohen과 Gans (1978)는 자녀들이 저지르는 가장 심각한 실수는 의무감에서 부양책임을 맡는 일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죄의식에서 부모 부양을 떠맡으면서 자녀들은 자신의 가족이나 개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부모를 위해 삶 모두를 재조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이것은 결국 자녀들로 하여금 죄책감과 후회스러움만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Allan (1988)은 일상적인 수준 이상의 도리를 깨닫는 자녀들은 부모가 가족 이외의 사람에 의해서 돌봄을 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부모의 욕구를 무시할 때 가장 많은 죄책감을 느낀다고 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이 도덕적 의무감이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서 그가 지적하는 높은 도덕적 의무감이란 무엇보다 자식으로서의 의무감만을 포함시키고 있다. 『효경』에서는 세 가지 효(三孝)를 제시하는데 그 중 가장 큰 효가 어버이를 높이는 일이며, 그 다음이 어버이를 가능한 한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고, 그저 기초가 되는 효가 어버이를 잘 봉양하는 것이라 설명한다 (大孝尊親 其次不辱 其下能養). 이러한 기초적 효의 의미와 내용을 담고 있는 개념이 자식으로서의 의무(filial obligation)이다. 종래 우리가 생각하던 효는 매우 규범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고 규칙에 얽매어 놓았다. 새로운 도덕성에 근거한 가치 합리적인 효 개념을 정립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고영복, 1983)은 더욱 설득력을 지닌다.

자식들이 의무에서 벗어나 성숙함에서 자식된 도리를 깨닫는다면, 자녀들은 노부모부양을 사회적 인습에 얽매어 타율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자신 뿐 아니라 부모의 권리와 욕구도 이해하고 충족시키므로 보다 건강한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는 계기로 삼는다. 그렇게 될 때 노부모부양은 Kohlberg의 후인습적 발달단계의 특성을 포함한다. 또한 어느 한 부분만을 고려하므로 다른 한편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모두 배려함으로 그 관계를 더욱 유지, 강화시킬 수 있고 Gilligan이 주장하는 보다 성숙한 도덕 발달을 이루게 된다. 어떤 틀에 박힌 부모와의 경직된 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탕으로 한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부양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성숙함을 이루지 않고서는 얻을 수가 없다.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가 노화로 인해 겪는 능력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도움과 지지에 부응하여 노부모부양문제를 다루게 될 때 도덕적으로 성숙한 자녀로서의 도리를 행할 수 있다고 본다. 자녀들이 부모를 객관적으로 보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 자녀로서의 도리를 성숙한 차원에서 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Nydegger (1991)의 주장은 중년기 자녀들이나 그들의 노부모들에게 구체적인 충고로 받아들여질 만하다.

이와 같은 특성을 포함한 자녀 된 도리는 앞에서 설명한 자식으로서의 의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성숙한 차원에서 노부모 부양을 사회적 상호관계로 받아들이고 행하려는 노력과 그 구체적 행함을 포함할 때 자식으로서의 의무와는 구별되는 자식으로서의 성숙함 (filial maturity)이라 할 수 있다. 가정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는 중년기 자녀들이 도덕적으로 성숙한 차원에서 노부모 부양문제를 다룰 수 있을 때 전 가족원과 가족 자체가 가족을 위해서 어느 일정 가족원이 희생되거나 한 개인의 돌봄을 위해서 전 가족원의 욕구나 필요가 무시되는 '가족주의'에서 벗어나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족환경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

## V. 결론

중년기 자녀에게 노부모 부양이란 이제 발달과업의 하나로 이해되어야 하는 규범적 과제이다. 또한 노부모 부양에 대해 사회로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마땅한 사회적 과제가 되어 있다. 사회적인 수준에서의 노부모 부양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려는 절실한 노력이 요구되는 분야인 것이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효를 강조하고 그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현실적인 차원에서 설득력 있고 실현 가능한 효의 경계를 정하는 일도 그 어느 것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특히 노부모 부양을 주로 책임져야 하는 중년기 자녀들은 자칫하면 전통적으로 답습되어지고 인습적으로 강조되어 내려오는 효도에 대한 이상적인 가치와 자신들이 행할 수 있는 실제 부양행동 사이의 간극과 괴리감으로 인한 심리적인 부담감에서 헤어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기 쉽다. 그럴수록 더욱 노부모 부양이란 가족 내에서 배타적으로만 다루기 어려운 과제요 이에 따라 오히려 자녀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가족의 골치거리로만 여겨지게 된다.

노부모 부양의 과제에 대해서 어정쩡한 처리태도라든가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원인 중 하나는 노부모 부양이 마치 한 개인의 곤혹스러운 터부인양 언급조차 되어서도 안되며 현실적인 주제로 내어놓기에는 너무나도 비밀스럽고 신성한 부분으로 이해되고 수용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가족 내에서 가족원들의 자력적인 협의 또는 묵인에 의해 현명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안이한 태도는 노인학대나 심지어는 노인유기 혹은 가족문제의 원인제공자로서 노인들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현저히 격하시키는 사태에까지 이르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년기 자녀들로 하여금 자기들 자신이 자녀로서의 도리를 유기 또는 외면하고 있다는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며 나아가 그들 자신의 부부관계나 부모-자녀관계까지 비정상적인 형태로 왜곡시켜 버리기도 한다.

자녀들이 노부모 부양을 자녀된 도리로 받아들이는 정도와 깊이는 그 동안 부모와 형성해온 부모-자

녀관계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어떠한 종류의 애착을 부모와 형성하였고, 얼마나 강한 의무감이 부모와 자녀 사이를 묶어주고 있는지 그리고 세대간에 이루어진 충성과 성실의 깊이가 어떤가에 따라서 노부모가 기대하고 있는 그리고 중년기 자녀들이 느끼고 있는 부양의무는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겠다. 부모-자녀관계에서 형성된 책임의식과 애착이 강화되고 상호성이 유지되고 배가되는 노부모 부양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의 권리가 존중되는 가운데 권리와 의무의 차원에 얽매어 이루어지는 노부모 부양이 아니라 개인적인 권리의 존중뿐 아니라 서로를 배려와 책임의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는 시각의 정립과 이를 구별하는 개념을 발전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요컨대 어느 한 세대의 보호와 이익을 위해서 다른 세대가 상반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상이할 수밖에 없는 세대간의 예민한 차이와 입장을 존중하는 가운데 필요와 욕구가 상충적으로 충족될 수 있는 노부모 부양이란 우리가 비로소 도덕적으로 성숙할 때에서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 【참고 문헌】

- 1) 경제기획원 (1987). 한국의 사회지표.
- 2) 고영복 (1983). 전통사회의 효개념과 현실적 과제.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아산사회복지 사업재단.
- 3) 성규탁 (1989). 한국인의 효행에 관한 연구. 전통 윤리의 현대적 조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4) 성규탁 (1994). 한국인의 부모부양 이념에 관한 연구 - 연령층에 따른 효행동기분석. 한림대학교.
- 5) 송성자 (1987). 가족관계와 가족치료. 서울: 홍익재.
- 6) 엄혜정 (1990). 중년기와 노년기 남·여성의 노인 부양의식 비교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7) 윤종주 (1982)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한국 사회학 16, 155-179.
- 8) 장윤식 (1988). 효도에서 사랑으로. 가족:가족의 변화와 전망. 우석.

- 9) 이계학 (1995). 한국의 전통가정교육사상의 현재적 조명. 1995년 춘계 아동학회.
- 10) 이신숙 (1994). 기혼여성의 부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 노모와의 유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1) 이신숙·서병숙 (1994). 노모와 동·별거하는 며느리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의 결정변인 탐색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 129-139.
- 12) 통계청 (1991). 한국통계연감.
- 13) 통계청 (1994). 1993년 인구동태통계연보(인구동태신고에 의한 집계).
- 14) 통계청 (1994). 한국의 사회지표.
- 15) Allan, G. (1988). Kinship, responsibility and care for elderly people. *Aging and Society*, 8, 249-268.
- 16) Bahr, S. J. (1989). Prologue: A developmental overview of the aging family. in Bahr, S. J., and Peterson, E. T. (eds.), *Aging and the family*. Massachusetts: Lexington Books.
- 17) Bengtson, V. L. (1993). Is the "contract across generations" changing? Effects of population aging on obligations and expectations across age groups. in V. L. Bengtson and W. A. Achenbaum (Eds.), *The changing contract across generations*. New York: Aldine de Gruyter.
- 18) Berman, J. J. (1987).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Irredeemable obligation and irreplaceable loss.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10, 21-34.
- 19) Blenkner, M. (1965). Social work and family relationships in later life with some thoughts on filial maturity. In E. Shonos, & G. Streib, (Eds.), *Social structure and the family: Generational relationship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46-59.
- 20) Blustein, J. (1982). *Parents and children: The ethics of the famil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21) Bowlby, J. (1977).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0, 201-210.
- 22) Brody, E. (1985). Parent care as a normative stress. *The Gerontologist*, 25, 19-29.
- 23) Brody, E. M. (1981). "Women in the middle" and Family help to older people. *The Gerontologist*, 21, 471-480.
- 24) Brody, E. M., Kleban, M. H., Johnsen, P. T. Hoffman, C., & Schoonover, C. B. (1987). Work status and parent care: A comparison of four groups of women. *The Gerontologist*, 27, 201-208.
- 25) Byrd, A. J. & Smith, R. M. (1988). 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decision to remarry using Gilligan's ethic of care. *Journal of Divorce*, 11, 87-102.
- 26) Callahan, D. (1985). What do children owe elderly parents? *The Hasting Center Report*, 15, 32-37.
- 27) Cantor, M. H. (1983). Strain among caregivers: A study of experience in the United States. *The Gerontologist*, 23, 597-604.
- 28) Cantor, M. H., & Hirshorn, B. (1988). Intergenerational transfers within the family context - motivating factors and their implications for caregiving. *Women and Health*, 14, 39-51.
- 29) Cicirelli, V. G. (1983). Adult children's attachment and helping behavior to elderly parents: A path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815-824.
- 30) Cohen, S. Z., & Gans, B. M. (1978). *The other generation gap: The middle-aged and their aging parents*. Chicago: Follett Publishing Co.
- 31) English, J. (1979). What do grown children owe their parents? in O. O'Neill & W. Ruddick (Eds.), *Having Childre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32) Foner, N. (1993). When the contract fails: Care for the elderly in nonindustrial cultures. in V. L. Bengtson and W. A. Achenbaum (Eds.), *The changing contract across generations*. New York: Aldine de Gruyter.
- 33)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 34) Gilligan, C. (1977). In a different voice: Women's conceptions of self and morality. *Harvard Educational Review*, 47, 481-517.
- 35) Horowitz, A. (1985). Sons and daughters as caregivers to older parents: Differences in role performance and consequences. *The Gerontologist*, 25, 612-617.
- 36) Klein, S. (1989). Caregiver burden and moral development. *IMAGE: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1, 94-97.
- 37) Kohlberg, L. (1984). The psychology of moral development: Moral stages and the idea of justice. New York: Harper & Row, Pub.
- 38) Lang, A. M., & Brody, E. M. (1983). Characteristics of middle-aged daughters and help to their elderly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193-202.
- 39) Mancini, J. A., & Blieszner, R. (1989). Aging parents and adult children: Aging parents and adult children: Research themes in intergenerational rel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275-290.
- 40) Norris, J. E., & Tindale, J. A. (1994). Among generations; The cycle of adult relationships. New York: W. H. Freeman and Co.
- 41) Ogawa, N., & Retherford, R. D. (1993). Care of the elderly in Japan: Changing norms and expect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587-597.
- 42) Piaget, J. (1970). *Structuralism*. New York: Basic Books.
- 43) Post, S. G. (1989). What children owe parents: Ethics in an aging society. *Thought*, 315-325.
- 44) Roberts, R. E. L., & Bengtson, V. L. (1990). Is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 unidimensional construct? A second test of a formal model.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45, S12-S20.
- 45) Rosenthal, C. J., Matthews, S. H., & Marshall, V. W. (1989). Is parent care normative? The experiences of a sample of middle-aged women. *Research on Aging*, 11, 244-260.
- 46) Rybash, J. M., Roodin, P. A., & Hoyer, W. J. (1983). Expressions of moral thought in later adulthood. *The Gerontologist*, 23, 254-260.
- 47) Scharlach, A. E. (1987). Role strain in mother-daughter relationships in later life. *The Gerontologist*, 27, 627-631.
- 48) Sommers, C. H. (1987). Filial Morality. In E. F. Kittay and D. T. Meyers, *Women and moral theory*.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or 1986, *The Journal of Philosophy*, 86, 439-456.
- 49) Stueve, A., & O'Donnell, L. (1984). The daughter of aging parents. In G. Baruch and J. Brooks-Gunn, *Women in midlife*. 203-225 New York: Plenum Press.
- 50) Walker, A. J., Pratt, C. C., Shin, H., & Jones, L. L. (1990). Motives for parental caregiving and relationship quality. *Family Relations*, 39, 51-56.